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 일치의 성령

성령 강림은 교회의 기둥인 열두 사도가 새로 구성된 직후 일어나는데, 이를 기점으로 교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는 오순절이었는데, 이는 유다인의 3대 축제 가운데 하나로 파스카가 지나고 오십 일째 되는 날로서, 본래 밀 수확을 끝내고 하느님께 만물을 바치는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경축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은 이 축제에 모든 유대인 남성이 예루살렘 순례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지중해 인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 주민의 수는 10만 명 정도인데, 이 축제 기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숙소가 모자라 인근에 천막을 치고 머물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필 이렇게 가장 많은 유대인이 모이는 때와 장소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은 이 사건에 유다교와 관련된 어떤 의미가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오늘 1독서인 사도행전의 말씀은 ‘오순절이 되었을 때’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간이 완전히 지났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은 이제 율법에 따라 다스려지던 옛 시대가 완전히 지나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성령께서 사도들 위에 내려오시는데,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십니다. 사도들은 거센 바람 소리를 들었고, 불꽃 모양의 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성령께서는 당신을 부정할 수 없는 실재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심약한 인간들의 상상의 소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바람과 불은 하느님 현존을 상징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셨으며(욥 38,1),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탈출 3,2-5)와 시나이산의 불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탈출 19,18). 이렇게 불 때, 성령께서 불과 바람으로 나타나신 것은 당신이 삼위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도들이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은 여러 언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로 보아야 합니다. 방언은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사도들의 말은 사람들이 바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성령 하느님 안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령 하느님의 강림은 바벨탑을 세울 때 깨진 언어의 통일성을 복구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수행하게 될 사명의 보편적 차원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느님께 대한 교만의 죄로 깨어진 인류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회복될 것도 알려줍니다.

주목할 점은 사도들이 바벨탑 이전 사람들처럼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소통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전체주의적인 획일이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듯이, 전체주의는 하느님의 절대 주권에 대항하고 인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오직 타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만이 인류가 함께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치의 성령 하느님 안에 모인 사람들의 출신 지역 15개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목록은 먼저 동쪽 지방부터 서쪽 지방을, 다음에 북쪽 지방부터 남쪽 지방을 배열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의 배열은 마치 복음의 빛으로 세상이라는 도화지를 동에서 서로, 북에서 남으로 그 끝까지 색을 칠해가는 과정을 보는 듯합니다. 성령 하느님께서 교회와 함께 완성하고자 미리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그림은 역사 안에서 아직도 그려지는 중입니다.

**영덕 본당 함원식 이사야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셨습니다.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이 전례를 시작합니다.

**입당성가 :** 147번 ‘임하소서 성령이여’

### 본기도

†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 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제1독서 : 사도행전 2장 1절-11절

**안 내 :** 오순절에 사도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묵 상 :** 주님이 주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분열과 혼란을 없애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친교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 공동체 안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심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 답 송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제2독서 : 코린토 1서 12장 3절-7절.12절-13절

**안 내 :** 바로 사도는 다양성 안에서 일치로 이루는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전해줍니다.

**묵 상 :**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믿는 이들에게 다양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다양한 선물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이익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부 속 가 :** 성령송가(매일미사 122쪽)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

**복 음 : 요한 20장 19절-23절**

**강 론 : '일치의 성령'(1-2쪽)**

**예물준비성가 :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 158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영성체 후 묵상**

성령은 우리를 일치로 이끌어 주는 힘입니다.

그 힘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며,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진리로 바꾸어 주시어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침묵>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자신을 맡김으로써

공동체와 이웃에게 일치와 평화, 사랑을 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144번 '주의 열이'**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2,47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알 림

###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 2018년 교구 친교의 날 및 제27회 교구장배 체육대회

- 일시 : 5월 22일(화) 09:00 - 16:00
- 장소 : 안동대학교 대운동장 및 테니스장
- 종목 : 테니스, 족구, 피구, 윷놀이, 줄넘기, 지구별 줄다리기
- 참가자격 : 안동교구 내 가톨릭 신자 (단, 예비신자는 참가 불가)
- 주최 :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안동지구 지구사목협의회
- ※자세한 사항은 공문 참조.

### ■ ‘새로 나는 성경공부’ (예언서)

- 일시 및 장소 : 안동 - 6월 9일, 16일, 23일, 30일, 7월 7일, 14일 교구청 (토요일 13:30-17:00)
- 함창 - 6월 11일, 18일, 25일, 7월 2일, 9일, 16일 함창 성당 소성당 (월요일 19:30-22:00)
- 강사 :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김 루치아나 수녀
- 회비 : 1인 40,000원(교재비 포함)
- 신청 : 5월 29일(화)까지 사목국으로

###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5월 20일(성령 강림 대축일) : 청송 본당 (견진성사)
- 5월 27일(삼위일체 대축일) : 진보 본당 (견진성사)

###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 교구 성령기도회

- 일시 : 5월 28일(월) 20:30
- 장소 : 예천 성당
- 강사 : 황영애 안젤라(대전교구)

### ■ 농은수련원 부부피정

- 주제 : 미, 사, 고(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 대상 :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부 (15쌍)
- 일시 : 5월 26일(토) 14:00 - 27일(주일) 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1인 6만원 (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 레지오 마리아 Pr. 간부 직책교육

- 일시 : 6월 2일(토) 10:00 - 14:4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각 Pr. 신임 서기, 회계 및 예비 간부
- 준비물 : 활동수첩, 목주, 필기도구, 월례회의 준비(해당자)
- 회비 : 1인 10,000원
- 문의 : 장주현 프란치스코 010-8851-4467

### ■ 농은수련원 가족피정(캠핑)

- 주제 : 우하하! (우리가족 하!하!)
- 대상 :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족(20가족)
- 일시 : 6월 2일(토) 14:00 - 3일(주일) 13:00
- 장소 : 농은수련원
- 피정비 : 가족 3인 기준 15만원(숙식, 캠핑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 2018년 안동 49차 선택주말

- <제49차 안동 선택 주말>이 다음과 같이 연기되었습니다.
- 일시 : 8월 17일(금) 19:00 - 19일(주일) 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 안동교구청 사목국 직원 모집

- 지원자격 : 세례 받은 가톨릭 신자(미혼 여성), 문서편집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운전 면허 포함)
-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및 세례증명서
- 문의 : 858-3114-5, kimatheo@hanmail.net
- 면접 : 서류 전형 후 개별 통보

### ■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마니파캇 봄피정

- 일시 : 5월 26일(토) 16:00 ~ 27일(주일) 15:00
- 장소 : 마리아 피정 센터
- 대상 : 만 32세 이하 미혼 여성
- 피정비 : 2만 5천원
- 문의 : 010-2835-4858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7장

#### 자녀 교육의 강화

##### 교육 환경인 가정생활

277. 가정에서도 우리는 소비 습관을 고쳐서 우리 공동의 집인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통합 생태론의 으뜸 주역입니다. 가정은 가장 으뜸가는 사회적 주체이며, 지상의 인간 문명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친교의 원칙과 결실의 원칙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는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가족 가운데 누군가 병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프게 되면 심지어 가정에서도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족 가운데] 누군가 아프면 가정의 유대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 인간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지 못하는 교육은 마음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이러한 교육은 자녀들이 다른 이의 고통에 ‘무더지게’ 하고 고통에 맞서며 한계를 체험할 수 없게 만듭니다.”

278. 더욱 세련되어 가는 의사소통과 오락 기술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교육적 관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매체들을 잘 이용한다면, 서로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과 연락하며 지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연락을 하며 사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들이 한자리에 있거나, 최소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는 더 개인적이고 속 깊은 대화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수단들이 사람들을 가까이 있게 하기 보다는 서로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에 가족이 각자 자기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놀거나, 전자 기기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배우자를 기다리다가 상대 배우자가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금지를 강요하기도, 가족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새로운 형태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의사소통은 때로는 청소년들이 의지가 약해지고 현실 세계에서 멀어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에 따른 관계

---

단절'은 이기적 목적으로 사적 공간을 침범하려는 이들에게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쉽게 악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279.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기 부모만을 믿을 수 있다고 느끼게 되면, 적절한 사회화 과정과 정서적 성숙이 저해되기 때문입니다. 더 폭넓은 현실을 마주하여 부성과 모성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가정의 교육 사명을 지원해 주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특히 이는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과 관련된 교리 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통합적 교육을 증진시키고자 우리는 “가정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계약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세계 주교대의원회의는 가톨릭 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가톨릭 학교는 “자녀를 교육하여야 하는 부모의 의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학생들이 성숙한 성인이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가톨릭 학교의 사명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성숙한 성인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하느님께 봉사하라는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가 자기 교리를 가르칠 자유가 있으며, 교육자는 양심에 따라 신앙에 어긋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 성교육의 필요성

280.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청소년들에게 “나이에 맞는 긍정적이고 신중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는 “심리학, 교육학, 교수법의 진보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의 교육 기관들이 이 도전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을 가볍게 여기고 무력화시키는 이 시대에 성교육을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교육은 사랑과 상호 증여에 관한 교육의 틀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성의 언어가 안타까울 정도로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내고 풍요로워집니다. 성적 충동은 자기 인식의 길과 자기 절제의 능력의 발전을 통하여 길들여질 수 있으며, 이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만남이라는 소중한 능력의 발휘를 촉진합니다.

281. 성교육에서 정보를 제공할 때에 청소년들이 아직 온전한 성숙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단계에 맞갖은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정보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넘치는 견해들, 통제를 벗어난 포르노, 성을 훼손할 수 있는 지나친 자극들에 맞서 비판적 사고를 키워 나가도록 해 주지 못하면서 넘치는 정보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식별하고 추구하며 사랑에 대한 그들의 능력에 손상을 주는 것들은 피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성을 알려 주는 데에” “새롭고 더욱 적절한 언어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 다음에 계속 -



## 성모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

이춘희 테클라  
(안동가톨릭문인회)

사랑의 성모 마리아님!

계곡 사이사이 산천의 신록은 우거지고, 예쁜 꽃들은 향기를 내며, 하늘을 나는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참으로 좋은 계절 오월입니다.

꽃감 고지인 우리 고장 시 도로변에 가로수로 심겨진 감나무에 연녹색을 띤 감잎 앞에서도 시인이 되고 마는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 낼 수 없는 자연의 신비가 참으로 소중한 아름답게 느껴지는 계절의 여왕 오월, 그 하늘의 신비 안에 성모님 함께 계심을 기뻐하며 감사드립니다.

아침 햇살처럼 따사롭고 봄꽃처럼 아름다우시고 한없이 인자하신 어머니께 저의 소박한 장미꽃 기도편지를 촛불에 담아 봉헌 하오니 어머니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어머니,

저는 하루하루를 어두운 영의 귀로, 어두운 영의 눈으로, 제 입은 병어리가 되고, 제 몸은 목석이 되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 속에서도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처럼,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와,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겸손과 끝없는 인내로 기도 속의 하루를 살게 하시고, 희생과 봉사 속에 기쁨을 찾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제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소서.

자비로우신 어머니!

어둠의 두려움과 죄의 괴로움에 떨고 있을 때, 깃털 같은 부드러운 손길을 내미시어 포근히 감싸주시고, 저의 대변자가 되어 주소서. 그리고 저도 당신처럼 예수님께 대한 깊은 신뢰로 그분의 도움을 청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저녁노을 같은 황혼기에 접어들기 전에 어머니의 자녀인 제가 부끄럽지 않고 후회 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어 먼 훗날, 어머니 품에 안길 때, 티 없는 아이처럼 천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저 테클라가 되게 빌어 주소서. 제가 어둠과 고통에 짓눌릴 때 항상 성모 어머니는 저의 곁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순결하신 마리아 성모 어머니!

당신은 잉태 순간부터 한 점 죄에 물들 없이 수정같이 맑으셨고, 전지 전능하신 분의 은총으로 감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부족한 알 수 없는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함으로 천상면류관을 쓰고 오신 어머니, 어머니의 그 영광의 면류관에 앞서 고통과 시련으로 얼룩진 아픔과 눈물의 삶 아니셨습니까? 당신의 그 따뜻함으로 말씀하소서. 저의 자녀들을 세속의 물들에서 보호하시고, 이제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찾게 하시어 늘 기쁨 속에서 성모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또한 즐거움과 괴로움을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맑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작은 이들, 소외된 이들, 버림받은 이들, 병든 이들, 죽어가는 이들 안에서 일상적인 보속행위가 죄인들의 회개와 영원히 멸망할 위험 속에 있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일상생활을 온전히 봉헌 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한없는 겸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아름다운 천상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님!

오월의 아름다운 이 밤에 어두운 제 영을 깨우고자 눈을 감고, 벽찬 마음으로 어머니를 부르며 간절히 드리는 저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